

## Ⅱ. 보험시장

### 1. 주요 지표

- 2015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성장하며 전년 대비 5.5%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6.0% 증가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4.8% 성장함.
- 2016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016년 명목 경제 성장률 전망치 4.0%를 소폭 상회하는 4.8% 증가가 전망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양호한 성장세와 퇴직연금시장 확대의 영향으로 5.4% 증가가 예상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완만한 성장세와 연금부문 소폭 감소로 3.8% 증가가 전망됨.

표 II-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생명보험	110.6	1.9	117.2	6.0	124.0	5.4	8.6
손해보험	76.6	8.8	80.2	4.8	83.3	3.8	6.8
전체	187.2	4.4	197.5	5.5	207.3	4.8	7.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 2016년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sup>2)</sup>는 2015년 보험침투도보다 0.1%p 상승한 12.8%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 침투도는 2015년보다 0.1%p 상승한 7.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 침투도는 5.1%로 2015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표 II-2 보험침투도 전망<sup>1)</sup>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sup>2),3)</sup>	2014	2015	2016(F) <sup>4)</sup>
생명보험	8.3	7.1	7.4	7.5	7.6
손해보험	4.9	4.9	5.2	5.1	5.1
전체	13.3	12.0	12.6	12.7	12.8

주: 1) 보험침투도=총보험료/명목GDP

2) FY2013부터는 국민계정체계 개편에 따른 명목GDP를 적용함.

3)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임.

4)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1) 보험침투도는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

- 2016년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sup>22)</sup>는 2015년에 비해 17만 1,000원이 늘어난 407만 2,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밀도는 각각 243만 2,000원, 163만 9,000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표 II-3** 보험밀도 전망<sup>1),2)</sup>

(단위: 천 원)

구분	FY2012	FY2013 <sup>3),4)</sup>	2014	2015	2016(F) <sup>5)</sup>
생명보험	2,306	1,538(2,162)	2,193	2,316	2,432
손해보험	1,371	1,070(1,408)	1,519	1,585	1,639
전체	3,677	2,608(3,570)	3,712	3,901	4,072

- 주: 1) 보험밀도=총보험료/총인구 수  
 2)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자료를 사용함.  
 3)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4) 괄호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임.  
 5)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2)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 2. 생명보험

### 1) 수입보험료 개요

■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대비 6.0% 성장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소폭 회복세와 보장성보험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4.9%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늘어나 전년대비 14.5% 증가함.

■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시장 확대로 5.4% 증가가 전망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5년에 비하여 0.5%p 하락한 4.4%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의 경우 생존보장을 강화한 선지급형 종신보험과 보험료 경쟁력을 높인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중심의 성장이 예상됨.
  -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연금보험 부진이 계속되어 증가율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높은 가입률<sup>23)</sup>과 퇴직연금시장에서 금융업권 간 경쟁 격화는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23) 2015년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84.4%를 나타내고 있음.

- 2015년 10월 전망에서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8.6%로 전망 하였으나, 최근 보험업권의 퇴직연금시장 확대 규모와 저축성보험 최근 실적을 재반영하여 증가율 전망을 5.4%로 조정함.

**표 II-4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구분	FY2013 <sup>1)</sup>		2014		2015		2016(F) <sup>2)</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개인	696,477	-10.6	979,382	-1.7	1,027,412	4.9	1,072,483	4.4	5.2
단체	75,891	25.7	126,371	40.9	144,725	14.5	163,224	12.8	31.6
합계	772,367	-8.0	1,105,753	1.9	1,172,137	6.0	1,235,707	5.4	8.6

주: 1)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2)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 2) 개인보험

〈보장성보험〉<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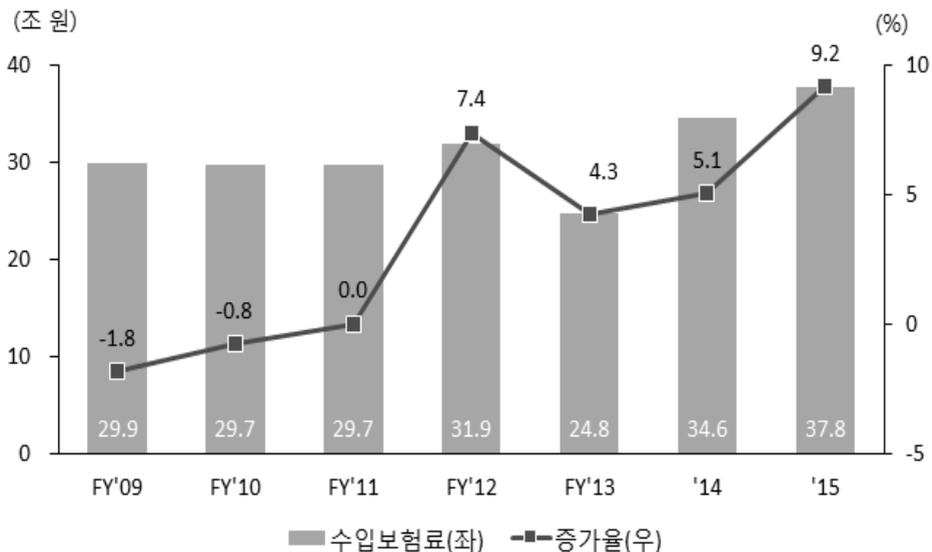
- 2015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지속적인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노력에 힘입어 전년대비 9.2% 증가함.<sup>25)</sup>
  - 2015년 상반기에는 예정이율 하락에 따른 보장성보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어 종신보험에 대한 선수요가 나타났음.

24)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25) 2015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3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하반기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종신보험 이외의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 개발 및 판매 확대가 이루어짐.
  -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생존보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을 출시한 바 있음.
  - 해지환급금을 낮추어 보험료 경쟁력을 높인 저해지환급금형 종신보험 상품 판매도 확대됨.
- 건강보험의 경우 간편 심사 건강보험을 통하여 유(有)병자 및 고령자 수요 확대 추세가 나타남.

그림 II-1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2016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다양한 형태의 신(新)종신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sup>26)</sup>

26) 2016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의 37.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에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예정이율 인하와 이에 따른 보장성보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음.
  - 또한, 감독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sup>27)</sup> 시행으로 2016년 4월부터 단계적인 사전적 감독 및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제한적이거나 보장성보험 가격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해 저축성보험 판매 부담이 큰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종신보험 판매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과 저해지환급금형 종신보험 중심의 판매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사망보험 해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FY2012 9.3%, 2014년 8.4%, 2015년 8.0%)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2016년 초 사망보험 수요 확대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를 재반영하여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치를 당초 6.1%에서 7.6%로 상향 조정함.

#### 〈저축성보험〉<sup>28)</sup>

- 2015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사혼합보험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6% 성장함.<sup>29)</sup>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sup>30)</sup>된 이후에 회복세가 예상되었으나 전년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음.

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0. 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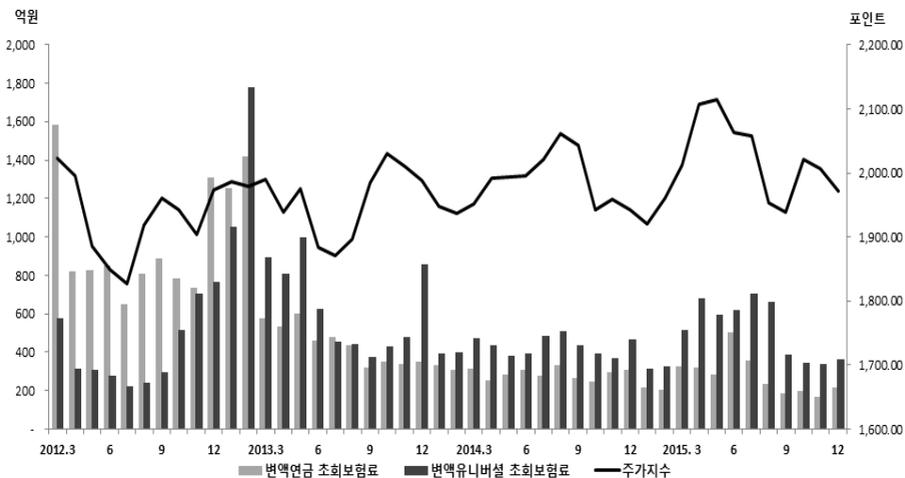
28)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29) 2015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55.4% 비중을 차지함.

30) 2012년 8월 즉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가 포함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제도 시행 이전에 즉시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선수요 효과가 2013년 2월까지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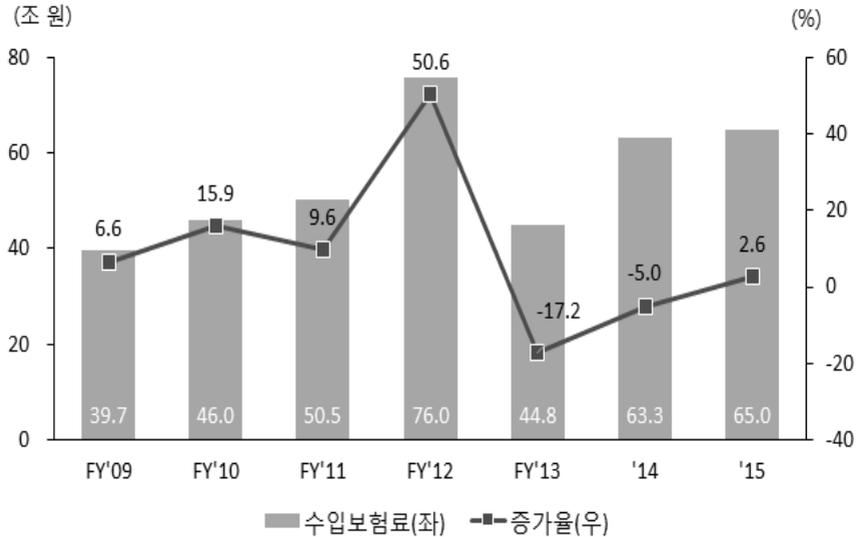
- 일반연금 수입보험료는 201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저효과가 소멸된 이후 전년대비 3.6% 성장하였고, 개인연금<sup>31)</sup>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보험료 규모를 나타냈음.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저금리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는 신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전년대비 6.6% 성장함.
- 변액저축성보험<sup>32)</sup> 수입보험료는 상반기 주식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나 이후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함.
  - 변액연금이 전년대비 6.5% 감소하여 전체 변액저축성보험 감소세를 주도함.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전년대비 2.1% 성장하였으나 2014년 성장률 5.6% 보다는 둔화됨.

그림 II-2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월 기준)



31)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의미함.  
 32)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그림 II-3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 2016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2.5% 증가가 전망됨.<sup>33)</sup>

- 노후소득 대비 및 세제혜택 등을 위한 저축성보험 수요가 존재하나,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축성보험 판매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연금보험 판매 시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수익률 제고 부담과 고령화로 인한 리스크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일부 회사의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보증이율 상품 제공과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노후소득 마련에 대한 니즈 확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세를 보일 것임.

33) 2016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53.9%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 회사들의 경우 저금리 심화로 인한 최저보증이율 하락으로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회사들의 경우 해외투자 비중 확대 등 공격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는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
-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주식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변액유니버설보험 시장 확대 여부가 불투명하고 변액연금 실적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전망에서 2016년 저축성보험이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일부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어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함.
  - 다만, 이러한 전망은 2016년 하반기 일부 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 움직임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임.
  - 만약, 2016년 초와 같은 판매 확대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더욱 높은 증가율을 시현할 것임.

표 II-5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sup>1)</sup>		2014		2015		2016(F) <sup>2)</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보장성 <sup>3)</sup>	248,094	4.3	346,027	5.1	377,794	9.2	406,351	7.6	6.1
저축성	448,383	-17.2	633,355	-5.0	649,618	2.6	666,131	2.5	4.7
개인계	696,477	-10.6	979,382	-1.7	1,027,412	4.9	1,072,483	4.4	5.2

주: 1)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2)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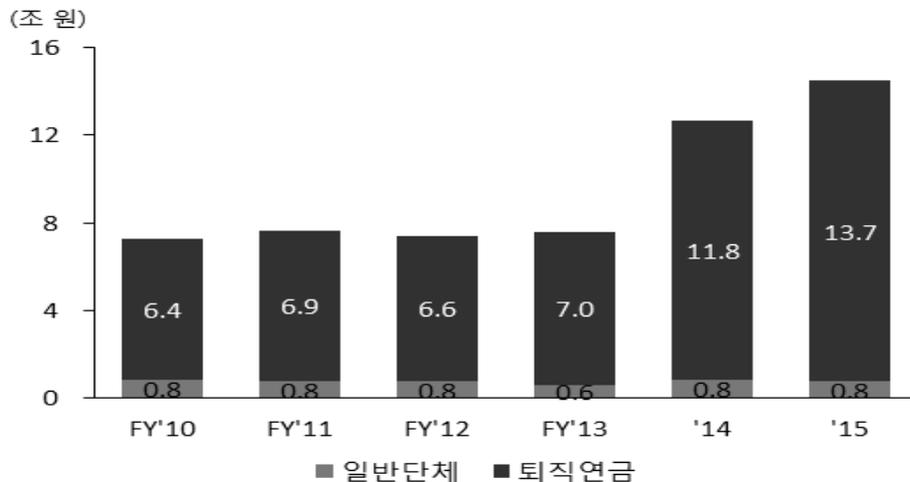
3)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을,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 3) 단체보험<sup>34)</sup>

■ 2015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시장 성장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함.<sup>35)</sup>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15.9% 증가하였으나, 2015년 10월 당시 추정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함.
  - 특히, 일부 대형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계열사 매각 및 구조조정, 판매정책 변화 등에 따른 퇴직연금 보험료 감소가 그 원인으로 보임.<sup>36)</sup>
- 한편,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5.1%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

그림 II-4 단체보험(일반단체 및 퇴직연금<sup>1)</sup>) 수입보험료



주: 1) 퇴직보험을 포함함.

34)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포함함.

35) 2015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12.3%의 비중을 차지함.

36) 퇴직연금 해지율은 FY2012 13.2%, 2014년 14.9%, 2015년 17.6%로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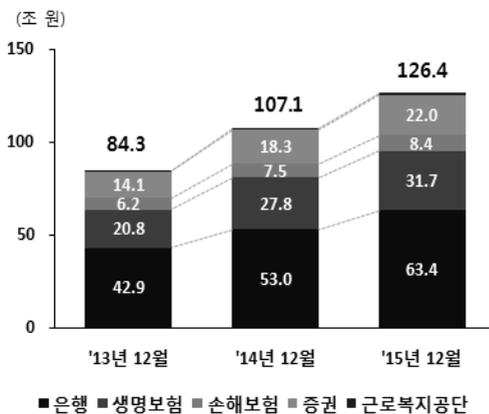
**Box 1** ▶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교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 보험산업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이 타 권역에 비하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 4,000억 원으로 2014년 말 107조 685억 원에 비하여 18.1% 증가함.
- 그러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은 각각 14.2%, 13.2%로 다른 권역(은행 19.6%, 증권 20.2%)에 비해 저조함.
- 은퇴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하락 및 상품 다양성 부족 등으로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Box 그림 및 표-1**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증가율

〈퇴직연금 적립금〉



자료: 금감원.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은행	28.1	23.4	19.6
생명보험	29.0	33.5	14.2
손해보험	20.6	20.9	13.2
증권	12.9	29.7	20.2
<b>전체</b>	<b>25.2</b>	<b>27.1</b>	<b>18.1</b>

자료: 금감원.

■ 2016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의하여 1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sup>37)</sup>

- 퇴직연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sup>38)</sup>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의 60세 정년제 도입 추진,<sup>39)</sup> 추가 세액공제 도입<sup>40)</sup>에 따른 IRP 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높은 가입률<sup>41)</sup>과 금융업권 간 경쟁 격화로 인해 전체 퇴직연금시장 확대가 생명보험업권의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일반단체보험의 경우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복지비용 축소 노력 등 부정적 요인으로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당초 전체 퇴직연금시장 확대 예상을 기초로 2016년 생명보험 단체보험도 31.6% 성장을 전망했으나, 다른 금융업권보다 퇴직연금시장 확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단체보험 성장률 전망을 12.8%로 하향 조정함.

표 II-6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sup>1)</sup>		2014		2015		2016(F) <sup>2)</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단체	75,891	25.7	126,371	40.9	144,725	14.5	163,224	12.8	31.6

주: 1)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2)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37) 2016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 중 13.2%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38)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

39)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명시됨.

40) 2015년부터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에 대한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었음.

41) 2015년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84.4%를 나타내고 있음.

### 3. 손해보험

#### 〈손해보험 개요〉

- 2015년 손해보험<sup>42)</sup>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4.8% 증가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그 동안 지속되어 온 초회보험료 감소세로 성장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2.1% 감소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추가<sup>43)</sup>에도 불구하고, 2014년의 기저효과와 일부 대형 보험그룹의 계열사 매각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타부문 이전 등의 영향을 받아 0.1% 감소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질병보험의 증가세에 힘입어 4.9% 증가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과 물담보 보장확대 등 보험료 증가요인의 영향에 힘입어 10.7% 증가함.
  -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의 성장에 따라 1.8% 증가함.
- 2016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소폭하락 및 장기손해보험·일반손해보험의 완만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2) 장기손해보험, 연금부문(개인연금,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43)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 납입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300만 원 한도)가 가능해 짐.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15년 이후의 보험요율 인상,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 외산차 가입 증가·대물배상 가입금액 고액화·자기차량담보 가입 증가 등의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세의 영향으로 9.0% 증가할 전망이다.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저축성보험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양호한 성장세로 전년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신규수요 위축에 따른 성장 여력 약화와 개인연금계좌 시행 등으로 인한 금융권 간 경쟁 가열로 1.0% 감소가 전망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5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종보험과 보증보험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적으로는 2.4% 증가가 전망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높은 성장을 보인 자동차보험 실적에도 불구하고 장기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의 급감으로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 전망치를 기존 6.8%에서 3.8%로 하향 조정함.

표 II-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3 <sup>1)</sup>		2014		2015		2016(F) <sup>2)</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준방향 증가율
장기손보	315,478	5.6	444,037	6.1	465,801	4.9	481,115	3.3	5.4
상해·질병	142,314	16.1	213,233	14.3	243,162	14.0	275,536	13.3	10.5
저축성	89,300	-4.3	117,617	-2.4	104,650	-11.0	83,825	-19.9	-3.4
기타 <sup>3)</sup>	83,864	1.1	113,186	1.5	117,988	4.2	121,754	3.2	2.8
연금부문	62,991	6.3	104,809	34.2	103,879	-0.9	103,477	-0.4	19.0
개인연금	31,829	3.1	41,090	-3.2	40,211	-2.1	39,809	-1.0	-0.2
퇴직연금 <sup>4)</sup>	31,162	9.8	63,719	78.8	63,668	-0.1	63,668	0.0	28.6
자동차	97,435	0.4	135,484	5.2	149,914	10.7	163,407	9.0	3.4
일반손보	61,679	1.5	81,424	-0.3	82,879	1.8	84,876	2.4	2.8
화재	2,413	-2.9	3,106	-3.6	3,041	-2.1	2,989	-1.7	-2.5
해상	6,016	-10.7	7,343	-2.2	7,091	-3.4	6,261	-11.7	0.5
보증	11,238	-4.8	15,152	-0.6	15,816	4.4	16,132	2.0	1.1
특종 <sup>5)</sup>	42,012	5.6	55,823	0.3	56,931	2.0	59,493	4.5	3.8
전체	537,582	4.2	765,754	8.3	802,473	4.8	832,874	3.8	6.8

주: 1)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FY2013 이외의 나머지 연도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2)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3)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4) 퇴직연금에는 퇴직보험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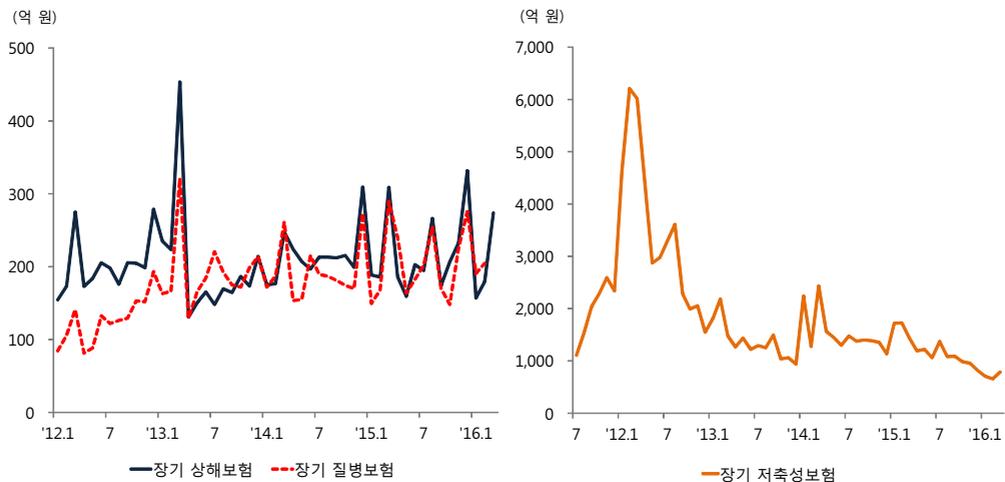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손해보험〉

■ 2015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양호한 성장세로 전년대비 4.9% 증가한 46조 5,801억 원을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각각 12.0%, 16.6%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급여의료비 자기부담금 상향조정, 예정이율 인하 등으로 제도변경 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선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임.
-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11.0% 감소하여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 저금리 추세 장기화로 인한 공시이율 하락,<sup>44)</sup> 저금리 리스크 확대로 인한 보험회사의 판매부담 증대 등으로 신규수요가 위축됨.

**그림 II-5** 장기상해, 질병, 저축성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4) 보험개발원, 공시기준이율: 2013년(3.78%), 2014년(3.57%), 2015년(2.81%), 2016년 6월(2.5%).

■ 2016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저축성보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 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지율 안정화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간병보험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13.3% 증가가 전망됨.
  - 2015년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014년 대비 14.0% 증가하였으며, 최근 성장률이 체감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예정이율<sup>45)</sup>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sup>46)</sup>과 같은 제도 변화는 신규수요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낮은 공시이율, 성장 여력 약화 등으로 전년대비 19.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sup>47)</sup> 보험소비자의 저축 여력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저금리의 지속과 더불어 2016년 6월 기준금리인하<sup>48)</sup>는 신규 수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2015년 이후 저축성보험에 대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공격적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손해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이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5)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상품을 기획할 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을 말함.

46) 보험료가 인상되면 높아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신규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나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유입되는 보험료 규모 자체는 커질 수 있으며, 전체 원수보험료 규모는 이러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화할 것으로 보임.

47) 2015년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대비 20.3% 감소하였으며, 2016년 1/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56.1%의 감소세를 나타내 그 폭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됨.

48) 2016년 6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조정함.

- 2015년 4/4분기와 2016년 1/4분기 실적이 각각 -15.1%, -24.6%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2016년 실적은 전년대비 19.9%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은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와 손해보험회사의 적극적 판매정책에 힘입어 2016년에도 전년대비 각각 6.8%와 5.2%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2016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5.4%에서 3.3%로 2.1%p 하향 조정함.

**표 II-8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3 <sup>1)</sup>		2014		2015		2016(F) <sup>2)</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장기손보	315,478	5.6	444,037	6.1	465,801	4.9	481,115	3.3	5.4
상해·질병	142,314	16.1	213,233	14.3	243,162	14.0	275,536	13.3	10.5
저축성	89,300	-4.3	117,617	-2.4	104,650	-11.0	83,825	-19.9	-3.4
기타 <sup>3)</sup>	83,864	1.1	113,186	1.5	117,988	4.2	121,754	3.2	2.8

주: 1)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FY2013 이외의 나머지 연도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2)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3)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연금부문(개인 및 퇴직연금)〉

- 2015년 개인연금<sup>49)</sup>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1% 줄어든 4조 211억 원을 기록함.
  -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제도<sup>50)</sup> 시행으로 인한 금융권 간 경쟁 심화, 세금 부과방식 변경의 영향 등으로 성장여력이 악화됨.
    -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증가된 저소득계층은 가입 여력이 적어 신규 가입이 많지 않은 반면,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중·고소득층의 신규 가입이 감소함.<sup>51)</sup>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0.1% 감소한 6조 3,668억 원<sup>52)</sup>을 기록함.
  - 퇴직연금 보험료는 2014년 기저효과와 일부 대형 보험그룹의 계열사 매각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함.

49)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연금저축이라 말하며,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에 포함됨.

50)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제도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가입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사 등)에 적립되어 있는 연금저축 적립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 4. 21).

51)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 인상 등 정부정책이 확대된 기간(2005~2012년)에는 연평균 17.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세제혜택 방식 변경 등 지원이 축소된 시기(2012년 이후)에는 성장률 둔화 현상(2.3%)이 나타남(보험개발원 보도자료 2014. 7. 3).

52) 퇴직보험 원수보험료인 14억 원을 포함함.

그림 II-6 개인연금 월별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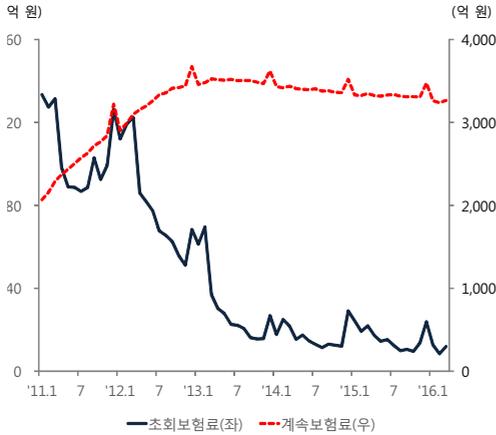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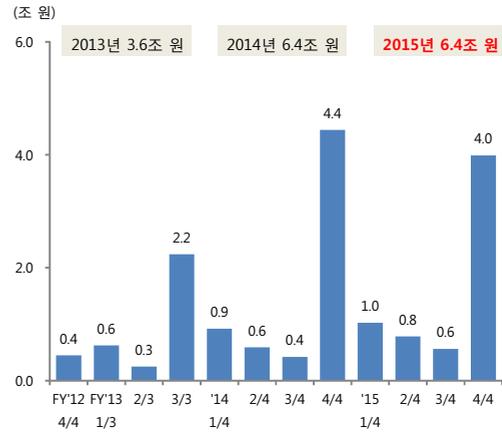


그림 II-7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신규수요 위축에 따른 성장 여력 약화로 1.0% 감소가 전망됨.

- 2012년 이후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계속되어<sup>53)</sup> 성장 여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으며, 계속보험료도 2013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저금리, 개인연금계좌 시행<sup>54)</sup>으로 금융권 간 경쟁 가열로 저성장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2015년 이후 기대 이하의 초회보험료 회복세,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권 간 경쟁 심화로 2016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0.2%에서 -1.0%로 하향 조정함.

■ 2016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5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53) 2016년 1/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49.4% 하락한 실적을 기록함.

5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5. 31) 참조.

- 전체 퇴직연금시장은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관심 증대,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의 영향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확정급여형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최소적립비율 상향조정이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하락은 모두 보험료 증가요인임.
  - 한편, 최근의 경기침체나 구조조정 본격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가입제도 도입 지연 등은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
- 퇴직연금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2015년과 2016년 모두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 2015년은 0.1%, 2016년 1/4분기는 10.2% 감소함.
  - 일부 대형보험그룹의 계열사 매각,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부담이나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예상에 따른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정책<sup>55)</sup>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2015년 4/4분기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한 주된 이유가 초회보험료 감소(-57.8%)에 기인한다는 점과 맥을 같이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2016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28.6%에서 0.0%로 2015년 실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55) 물론 적극적 판매정책의 추진을 통해 20% 이상의 고성장을 시현한 보험회사도 있음.

표 II-9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3 <sup>1)</sup>		2014		2015		2016(F) <sup>2)</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연금부문	62,991	6.3	104,809	34.2	103,879	-0.9	103,477	-0.4	19.0
개인연금	31,829	3.1	41,090	-3.2	40,211	-2.1	39,809	-1.0	-0.2
퇴직연금 <sup>3)</sup>	31,162	9.8	63,719	78.8	63,668	-0.1	63,668	0.0	28.6

주: 1)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FY2013 이외의 나머지 연도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2)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3) 퇴직연금에는 퇴직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자동차보험〉

■ 2015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요율 인상, 물담보 보장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한, 14조 9,914억 원을 시현함.

-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은 개별소비세 인하,<sup>56)</sup> 외산차에 대한 선호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냄.<sup>57)</sup>
- 요율인상,<sup>58)</sup> 외산차의 보험가입 가입증가·대물 가입금액 고액화·자차담보 가입 증가 등으로 인한 물담보 보장확대<sup>59)</sup> 등으로 원수보험료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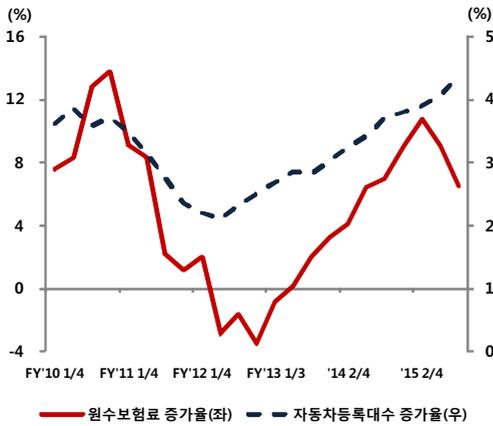
56) 2015년 8월 정부는 소비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인하함.

5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1. 17), “자동차 등록 대수, 2천 1백만 대 육박”.

58) 2014년 4월부터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이 시작되었고, 이후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요율인상이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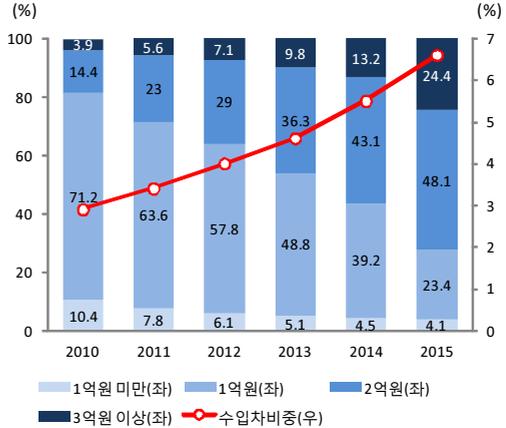
59)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6. 4. 6), “2015년 자동차보험 할인형상품·물담보 보장확대 수요 증가”.

그림 II-8 원수보험료/등록 대수 증가율



자료: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

그림 II-9 수입차비중과 대물담보 가입금액



자료: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

■ 2016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15년에 이어 보험요율 인상,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세 등의 영향을 받아 9.0% 증가할 전망이다.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 대수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2016년에도 전년대비 4.3%<sup>60)</su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대당 보험료의 증가요인으로는 보험요율 인상, 물담보 보장확대수요 증가 등이 있음.
  - 손해보험회사들은 2014년에 이어 2015년과 2016년에도 보험요율의 인상 등, 기본보험료 인상이 전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2.4% 인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됨.

60) 2016년 5월 현재 전년 말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은 1.8%임(국토교통통계누리,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참조).

- 물담보 보장확대 수요 증가는 외산차 가입 증가(2015년 말 기준 전년대비 26.1% 증가), 대물배상 가입금액 고액화(2억 원 이상 고액가입자 16.2%p 증가), 자기차량담보 가입 증가(차량담보 가입률 1.8%p, 차량담보 평균차량가액 3.7% 증가) 등에 기인함.<sup>61)</sup>

- 한편, 온라인자동차보험 가입 확대, 마일리지 및 블랙박스 특약 가입 확대 등 해당 보험료의 감소 요인도 존재함.
  - 특히, 2015년 말 인터넷 보험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의 등장으로 온라인 판매 증대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원수보험료에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보험요율 인상 및 대물담보 가입확대 지속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2016년 전망을 3.4%에서 9.0%로 상향 조정함.

**표 II-1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3 <sup>1)</sup>		2014		2015		2016(F) <sup>2)</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자동차	97,435	0.4	135,484	5.2	149,914	10.7	163,407	9.0	3.4

주: 1)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FY2013 이외의 나머지 연도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2)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61)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6. 4. 6), “2015년 자동차보험 할인형상품·물담보 보장확대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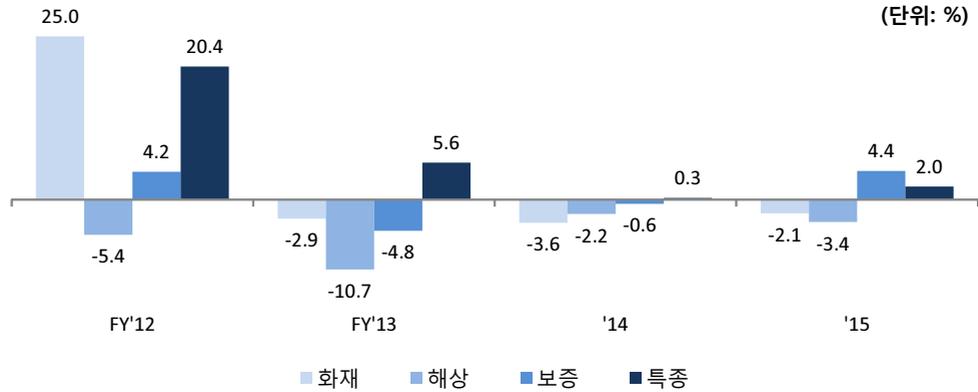
## 〈일반손해보험〉

- 2015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및 해외원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1.8% 증가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공장 화재보험 물건 감소, 타 보험으로의 물건이탈<sup>62)</sup> 등으로 2.1% 감소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와 조선·해운업계 불황 등으로 선박보험과 적하보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3.4% 감소함.
    -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 관련 화물 물동량 급감,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경비절감 차원에서 보험수요가 크게 줄어들음.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투자 확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수요 증가<sup>63)</sup> 등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함.
  - 특종보험은 상해보험(5.8%)과 배상책임보험(7.7%) 실적 개선에 힘입어 2.0% 증가함.

62) 특종보험의 종합보험, 장기 재물 및 통합형보험 등 다수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들이 영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일부 화재보험 수요가 이들 종목으로 분산되고 있음.

63) 파이낸셜 뉴스(2016. 3. 16), “‘깡통전세 위험 줄이자’ 보증보험 가입 작년비 90%↑”.

그림 II-10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세 지연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과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2.4% 증가가 전망됨.

- 화재보험의 경우 신규수요 부족, 적정 손해율에 따른<sup>64)</sup> 요율 인상 자제, 장기 또는 종합보험으로의 물건이탈 추세로 1.7% 감소가 전망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세계 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교역량 감소에 따른 해운업과 조선업 침체로 전년대비 11.7% 감소가 전망됨.
- 보증보험은 2015년 건설경기 호조세의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2.0%의 성장이 전망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 확대와 의무가입 종목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전망치는 경제회복세 지연 등으로 기존 2.8%에서 2.4%로 하향 조정함.

64) 2014년 59.2%, 2015년 54.2%를 기록함.

표 II-11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3 <sup>1)</sup>		2014		2015		2016(F) <sup>2)</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일반손보	61,679	1.5	81,424	-0.3	82,879	1.8	84,876	2.4	2.8
화재	2,413	-2.9	3,106	-3.6	3,041	-2.1	2,989	-1.7	-2.5
해상	6,016	-10.7	7,343	-2.2	7,091	-3.4	6,261	-11.7	0.5
보증	11,238	-4.8	15,152	-0.6	15,816	4.4	16,132	2.0	1.1
특종 <sup>3)</sup>	42,012	5.6	55,823	0.3	56,931	2.0	59,493	4.5	3.8

주: 1)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FY2013 이외의 나머지 연도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2)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3)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저자약력

### 총괄

임준환(선임연구위원)

### 경제·금융

경제총괄 이승준(연구위원)

해외경제 이아름(연구원)

국내경제 정인영(연구원)

국내금융 이해량(연구원)

### 보험산업

보험총괄 이승준(연구위원)

생명보험 최원(선임연구위원)

이해량(연구원)

손해보험 김경환(수석연구원)

정인영(연구원)

## CEO Report 2016-03

###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부록)

발행일 2016년 7월

발행인 한기정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28)로 연락하여 주십시오.